오바마, 1조달러 경기부양책 검토

WSJ 보도…"내년 6천억달러 2010년 4천억달러 투입"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당초 고려했던 2년간 5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 규모를 훨씬 키워 최대 1조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2일 미 하원이 다음 달 재생에너지 투자와 함께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5천~6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대책을 다루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의 과감한 개입이 없을 경우 실업률이 9%로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바마 측근과 자문가들은 6천억달러의 부양책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최종 규모가 7천억~1조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팀의 경제 전문가들은 첫해에 6천억달러를 투입하고 2010년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3천억~6천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오바마의 정권인수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바마가 이번 주에 경기부양책에 관해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오바마 진영의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매일 같이 나쁜 소식뿐이라는 것이라며 그런 소식과 함께 적절한 경기부양책의 규모에 대한 생각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경제팀이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이 내놓은 부양책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로런스 린지는 2년간 8천억~1조달러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마틴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도 1년에 당초 3천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최소 4천억달러로 올렸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오바마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부양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더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자이툰 부대 마지막 하기식 지난 13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가 철수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진 하기식에서 장병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가 다단계 금융사기 일파만파

피해 규모 500억달러…유명 인사·금융기관 등 피해자 속속 드러나

미국 월스트리트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버나드 매도프(70)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이 벌인 폰지사기(Ponzi Scheme·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수법)에 미국의 유명인사들과 금융기관, 각종 재단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매도프가 자신이 설립한 증권사인 '버나드 매도프 LLC'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헤지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벌인 이번 사기사건의 피해 규모는 최소 5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고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3일 역대 최악의 폰지사기인 매도프의 사기사건에 미국의 유명인사를 포함한 부유층과 국제은행, 헤지펀드 등이 수백억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에는 미 프로야구 뉴욕메츠의 소유주인 프레드 윌폰, 미프로풋볼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소유주인 노먼 브라먼, 제너럴모터스(GM)의 금융회사인 GMAC 회장인 에즈라 머킨 등 유명인들도 매도프에게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봤다.

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페어필드그리니치, 트레몬트캐피털매니지먼트, 맥스암캐피털매니지먼트 등 적어도 3개의 펀드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맥스암의 경우 매도프에게 투자를 했다가 2억8천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사법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은 매도프의 사기사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NYT는 피해자가 수천에서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서울대 연구팀 항암유전자 p53 제어 마이크로 RNA 찾아내

국내 연구진이 대표적인 종양억제유전자의 하나인 p53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RNA(miRNA)를 찾아내고 그 작용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빛내리(39) 교수팀은 14일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RNA 가운데 'miR-29' 마이크로 RNA가 가장 중요한 암 억제 유전자 중 하나인 p53의 작용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작용 메커니즘을 암세포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학술지 '네이처 구조·분자생물학(Nature Structural & Molecular Biology)' 15일자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마이크로RNA는 염기 20개 정도로 이루어진 단백질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작은 RNA로 유전자 발현 과정을 조절해 세포분화와 배아발생, 암 발생과정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美 "北 핵검증 합의 지킬때까지 중유지원 중단"

미국 정부는 12일 북한이 핵검증 합의를 지킬 때까지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향후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 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공키로 한 중유가 이미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앞서 6자회담 틀내에서 동의했던 북핵 검증절차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중유제공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핵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자 북핵폐기를 위한 접근전략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러시아의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13일 "북한의 핵 검증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 선적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우리는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에 러시아 대표단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국방부 이어 국가정보위 보고서도

北 '핵무기 국가' 명기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최근 발간된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보고서도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가정보위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에는 "미래에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 에서 정권교체 또는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과연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관리,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 기술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이 수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USJSFOM가 아시아지역의 5개 핵보유국 중 하나로 북한을 기술한 '실수'를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합동사령부는 이를 수정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떤 방법을 통해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합동사령부의 보고서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美전투기 추락 사망 한인 일가족 영결식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미 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한인 일가족에 대한 영결식이 13일 샌디에이고 현지에서 엄수됐다.

샌디에이고 남쪽 출라비스타 글렌애비 공원묘지에서 오후 1시께 열린 영결식에는 부인과 두 딸, 장모를 한꺼번에 잃은 윤동윤씨 등 유가족과 윤씨 가족이 다니던 샌디에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군 측에서는 미 서부지역 해병기지를 총괄하는 마이클 레너트 소장과 사고 전투기가 소속된 미라마 해병기지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오코너 대령 등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일본인 납치 인정은 보상금 100억달러 때문"

탈북 장철현씨 밝혀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출신으로 한국에 망명한 장철현씨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보상금 100억달러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에서 장씨는 김 위원장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2002년 정상회담 직후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용으로 배포된 강연자료에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 정권이 북한에 100억달러를 지불키로 했다"고 쓰여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치 인정만으로 일본 통치에 대한 보상금 100억달러를 지급키로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북한측이 납치 인정을 통해 거액의 경제적 대가를 기대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사회주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철저한 개인독재로 온건파와 강경파간 투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 무 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법원경매
친절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궁동	48/233	8억3500만	5억8500만	사무실,병원,학원적합
오치동	50/52	1억6100만	1억1300	창고,사무실,사선초인근
금호동	104/234	7억3100만	4억960만	학원,사무실,부영 1층인근
운암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상가,사무실,운암고가인근
용봉동	137/223	6억1000만	3억5000만	식당,사무실
양산동	362/99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융,의원,학원,장례식장,대리점
우산동	188/193	10억6000만	5억8000만	상업지역 1,2층건물
누문동	40/34	4억3000만	2억4000만	수청초교인근 나홀로주택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암동	41.4/58.6	1억4900만	8400만	현대1 차인근,2층
소촌동	57/53	9500만	6620만	송정중앙초인근,2층
백운동	114/28	2억3700만	2억	도시형생활주택
신창동	67.5/51	2억3150만	1억8200만	복층형,전원주택
화정동	134/83	6억5500만	2억8400만	화정역인근,2층
진월동	39.6/46	8180만	5730만	박미트인근
농성동	38/26	1억970만	4300만	건강보험협회,복층형
계림동	95/86	1억6740만	9370만	단층,계림3구역
지산동	83/42	2억4740만	1억7320만	단층,도로변
영광영산면	150/53	5270만	2400만	성상마을내
화순동면	153/50	1억6300만	9120만	전원주택,2층
장성남면	200/44	8840만	6200만	단층,도로접
담양고서면	65.6/32.5	6100만	4270만	잣정마을내,단층

▶아파트

소재지	명칭	층	면적	감정가	최저가
내방동	혜테	2층	32	1억1000만	7700만
쌍촌동	모아제일	1층	32	1억1600만	7424만
나주	송월주공	8층	20	4200만	2940만
빙림동	모아	8층	29	6700만	4690만
치평동	라인대주	3층	25	9000만	6300만
문흥동	제일파크	7층	20	5100만	3570만
화정동	이편한세상	16층	67	49천만원	3억4300만
운남동	주공5단지	4층	32	9000만	6300만
금호동	일신	3층	32	1억500만	7350만
치평동	중흥	6층	32	1억3800만	9660만

▶근린상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계림동	32.6	4억6300만	2억750만	금호계림주상복합/충도로변
화순읍	36	1억5000만	1억500만	부영6차도로변/2층
풍암동	23	9000만	6300만	선일초교인근/8층
풍암동	15.8	7000만	3136만	등부센트리빌상가/2층
매월동	11	6200만	2780만	산업용자유통센터/1층
치평동	46.8	3억5500만	1억930만	중흥에스클래스상가/4층
월계동	119.7	11억2000만	4억	컨벤션/1층

▶근린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중흥동	40.5/43.7	1억1830만	6630만	사무실,주택/중흥초인접
용봉동	203/180	6억7880만	4억7500만	식품공장,주택
화정동	341/661	16억8000만	7억5610만	대형교회인접,단층창고
남동	50/162	3억1320만	2억1950만	인쇄소,주택
운암동	47/57	1억8100만	1억700만	화사,주택/계림제1주상복합

▶다세대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풍암동	57.1	1억6000만	1억1200만	대주빌라,1층
목파면	19.7	8400만	5880만	아이비빌,3층
운암동	22.7	9500만	5320만	참존빌라, 2층
화정동	15.3	6500만	4550만	엄주주공, 2층
신가동	25.6	1억3500만	7560만	그리빌라, 4층
운림동	44.9	2억	1억4000만	무등스위트빌라 2층
방림동	14.8	4000만	2800만	송림맨션,3층

▶숙박시설 (모텔)/원룸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신가동	60/114	3억3000만	2억1200만	13가구/3층건물
학동	110/259	8억1820만	2억9330만	5층,모텔
담양금성면	726/379	7억8500만	3억4300만	4층,모텔
나주남평읍	832/626	15억4100만	5억5220만	4층,모텔
나주송월동	64/300	5억8100만	2억6100만	5층,모텔

▶오피스텔

소재지	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치평동	11.6	8000만	4480만	구영디원빌,4층
화정동	12.2	5500만	2464만	금호월드,10층
치평동	54	4억2000만	2억9400만	로잔디몰피크,4층
치평동	24	1억5000만	8400만	그랜드오피스텔,9층

▶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담양월산면	1444/890	10억3500만	7억2500만	월산초교인근
운수동	634/185	11억5000만	6억4500만	대일유압/근계목재협
화순동면	1248/841	7억770만	3억9630만	동연농공단3재
인창동	1000/635	15억	6억5000만	하남공단내
용동	294/206	4억4030만	3억820만	평동공단내

월산동 대118/건295 매매가4억7000만 교통편리,대로변 병원,요양원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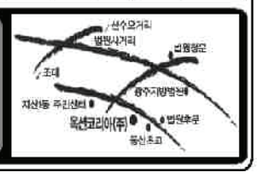
월계동 전용면적 119.7 감정가1억2000만 최저가1억 1층, 상가, 대로변

오치동 대152/건588 감정가16억8000만 최저가8억3000만 5층상가/대로변

신가동 대80/건114 감정가3억300만 최저가2억1200만 13가구/원룸

학동 대194/건320 감정가1억 최저가8억8280만 식당,모텔

인창동 대1000/건635 감정가15억2000만 최저가8억5000만 공장/하남공단내



광주문화신협

15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무보증 신용대출 1,000만원까지 가능!"
-사업장 카드체크기 무상임대-

문화신협 카드체크기를 사용(변경)하시면...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료
② 신협직원A/S관리

담보대출 안내

부동산 담보대출
✓1 아파트, 기타부동산 시세의 최고 70%
(상가, 근린상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

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1 임대 보증금의 최고 70%(부영임대아파트 우대)
(계약서, 인감 3통, 등·초본1통, 전입세대열람표, 인감도장, 신분증)

자동차담보대출
✓1 대출한도:선수금 5%이상을 제외한 차량금액 및 부대비용
✓2 차량구입시 견적서 제출시 최고 우대혜택가능

특례보증대출
✓1 대출한도:소기업, 소상공인(개인사업자) 1천만원 무보증 대출 가능
✓2 대출대상:사업자 등록일 3개월 경과 사업자

사업자 대출 안내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최고 7,000만원
✓1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가 있거나 예정인 사업주
✓2 상환방법:100일부터 360일까지 자유롭게 선택가능
일일상환대출 조견표(예시)

구분	100일	200일	300일	360일
1,000만원	103,498	53,520	36,887	31,352
3,000만원	310,497	160,560	110,560	94,056
5,000만원	517,490	267,600	184,435	156,760

문흥본점:266-4150 (문흥지구 첫 사거리) 운암지점:528-4150(운암동 블루밍@1단지 상가)
양산지점:573-4150 (양산택지지구 사거리) 블루밍지점:513-4150(광주문화예술회관 건너편)